

2001년 7월 29일 시행한 서울시 국어 복원 문제 해설입니다. 문제가 정확히 복원되지 않아 문항이나 해설 중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로박문각 행정고시학원 국어 김철민 선생-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2)

와사등(瓦斯燈)*
- 김광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녀 있다.
내 호올노* 어텔* 가라는 슬픈 신호(信號)냐.

긴---여름 해 황망*히 날애를 잡고
느리슨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저저
찰난한 야경(夜景)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크러진 채
사념(思念)의 병어리 되어 입을 담을다.

피부의 바까테 숨이는 어둠*
낫서른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답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석기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기일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떠케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녀 있다.
-- <조선일보>(1938) 발표, 첫시집 [와사
등](1939)에 수록. 표기법은 시집을 따름
* 와사등 : 가스등의 음차식 표기
* 차단한 : 시적허용, 차디찬(시적허용), 불빛이 희미한
* 호올노(홀로) : '고독'의 의미
* 어데로 : '방향'을 의미
* 황망(慌忙) : 어찌할 줄 모르게 바쁨
* 피부의 바까테 숨이는 어둠 :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
* 그림자 : 고독한 현대인 상징

1. 1. 이 시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 ① 도시 문명에서의 절망과 비애
- ② 현대인의 소외 의식
- ③ 이별의 정한
- ④
- ⑤

2. 2. 이 시에서 두드러진 심상은?

- ① 시각적 심상② 청각적 심상③ 촉각적 심상
- ④ 후각적 심상⑤ 공감각적 심상

<해설 -핵심 정리>

▶ 감상의 초점

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삶의 고독과 삶의 비애감을 주관적인 감각 체험으로 묘사한 시로서 현대 문명 속에서의 삶이 지닌 균중 속에서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뿌리 뽑힌 이방인적인 우수를 노래했다.

이 작품의 '등불'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어둠을 밝히는 시인 의식의 표출이면서 '떠남'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떠남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인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는 어둠을, 날개를 접는 새에 비유한 감각적 표현이다. '고층 건물→묘석', '찬란한 야경→잡초'에서 도회인의 고독감과 불안, 고민을 반영한 시각적 이미지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주목하자.

▶ 성격 : 감각적(회화적), 주지적

▶ 심상 : 시각적(1연: '차단한 등불', '비인 하늘', 2연: 석양 무렵의 스산한 도시의 모습),촉각적, 공감각적 심상

▶ 운율 :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3음보(제2연) 및 2음보(제3연)의 율격이 보인다.

▶ 구성 : 수미쌍관의 구성

① 1연 : 쓸쓸한 도시 풍경-(현대인의 방향 감각의 상실)

② 2연 : 도시 문명의 종말감-(현대인의 무정향성(無定向性)의 근거 제시)

③ 3연 : 도시적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비애-(슬픈 감정의 직설적 표현)

④ 4연 : 종말 의식을 갖고 살면서 느끼는 중압감-(현대 물질 문명 속의 비애감)

⑤ 5연 : 쓸쓸한 도시 풍경-(현대인의 방향 감각의 상실)(1연의 반복 심상)

▶ 제재 : 와사등

▶ 주제 : ① 현대인의 고독감과 우수, 불안 의식

②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절망과 비애

▶ 참고 : 1930년대 주지시

최재서(이론 도입) → 김기림(작품 창작) → 김광균(결실)

<연구 문제>

1. 이 시에서 화자인 '나'의 방향 상실감을 나타낸 두 어절의 시구를 찾아 쓰라.☞ 비인 하늘

2. 제2연의 2,3행에서 비유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쓰라.

☞ '묘석'은 현대인의 종말감을 암시하고, '잡초'는 무질서한 현대 문명을 비유한다.

3. 이 시에서 ㉠이 표상하는 바를 10자(실자수) 내외로 쓰라.

☞ 고독하고 쓸쓸한 현대인

4. 이 시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0자 정도로 설명하라.

☞ 현대 문명에서 느끼는 비애, 고독 등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5. 이 시가 시문학과의 한 사람인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와 다른 점을 대상과 심상의 두 측면에서 비교해 보라.

☞ 대상 : '와사등'이 물질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우수를 그리고 있다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는 순수미의 세계를 향토적 정서로 표현하고 있다.

심상 : 김광균이 주로 시각적 심상에 의존하여 회화성을 강조했다면, 김영랑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 음악성을 강조했다.

<감상의 길잡이>(1)

김광균의 대부분의 시가 그렇듯이 이 시도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사람의 의식이나 소리까지도 모양으로 바꾸어 놓는 회화적 특성을 드러낸다. 『와사등』은 아무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떠남의 심상에는 도시적 상황 속에서의 현대인의 불안 의식이 나타나 있다.

제1연에서는 물질문명 속에서 현대인의 갈 곳 모르는 슬픈 심정을 잘 그리고 있다.

제2연에서는 현대인의 슬픈 심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문제의 한계를 벗어나 시대

적 상황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제2연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특성은 이 시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제3연에서는 제2연에서의 어둠의 정서를 이어받으면서 다시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은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이다.

제4연에서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면서 느끼는 중압감, 그리고 존재로서의 실체를 상실해 버린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제5연은 제1연의 반복이다. 다만 행의 배열만 바꾸어 놓고 있다. 이것은 등불의 이미지를 선명히 하려는 배려이며, 결국 현대인의 고독감과 비애를 실감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감상의 길잡이>(2)

김광균은 김기림, 정지용과 더불어 30년대 모더니즘 시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시인이다. 그의 시는 직접적으로는 김영랑으로 대표되는 시의 음악성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김기림의 말처럼 "소리조차 모양으로 번역하는 기이한 재주"를 가지고 회화적인 시를 즐겨쓴 이미지즘(imagism) 계열의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도시적 소재를 바탕으로 공감각적 이미지나 강한 색채감, 이미지의 공간적 조형 등의 기법을 시에 차용(借用)했으며, 특히 사물의 한계를 넘어 관념이나 심리의 추상적 차원까지도 시각화하였다. 그의 시에는 기계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삶의 우수와 같은 소시민적 정서가 짙게 깃들여 있다.

이 시는 참신한 비유를 통한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보인 작품이다. 시각적 심상을 주축으로 한 이 시는, 그것을 촉각적 심상으로까지 전이시키면서 공감각적 심상을 보이고 있다. <와사등>이란 제목은 '가스등'이라는 이국적(異國的) 정서를 환기시켜 주는 도시적 가공물로 일몰(日沒)과 밤으로 귀결되어 절망을 상징하며, 나아가서는 일체 치하라는 당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허와 비애로 살아가는 당시대 사람들의 삶을 표상하고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라고 외치며 방향 감각을 잃은 현대인의 무정향성(無定向性)과 '사념'이 '병어리'가 된 도회인의 정신적 위기를 통해 화자는 묘석과 잡초로 비유된 황량한 도시 문명을 신랄히 비판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피부에 스미는 어둠'과 '거리의 아우성 소리'로 '낮설고 눈물겨운'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는 갈 곳을 잃고 '군중의 행렬에 섞이'게 된다. 그리하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어두운 그림자 길게 늘어' 절망할 때, '비인 하늘에 걸린' '차단한 등불 하나'가 그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조국을 잃고 떠돌이의 삶을 사는 당시 한국 지성의 정신적인 방황, 현대의 화려한 물질 문명이 가져다 주는 무질서와 황량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대 지성의 방황을 '와사등'을 소재로 그리고 있지만, 정작 김광균 자신도 이 작품의 시적 자아처럼 제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그저 무기력한 지성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감상의 길잡이>(3)

제목의 '와사등'부터가 도시적 공간, 그것도 이국적 정서물의 공간이며, 그것은 일몰과 밤으로 귀결되어 절망을 상징한다. 나아가서는 일체하라는 당시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현대를 사는 지성인의 고민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희망도 이상도 상실한 현대인의 방황과 절망 의식이 '푸른 신호등' 앞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이 표백된 모더니즘의 시이다. 또한 도시 문명이 안겨 주는 절망감을 '와사등'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부터 시작하여 회화적 수법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한국시의 새로운 영역 확대와 모더니티를 부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사람의 의식이나 소리까지도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 놓은 회화적 기법과 도시 문명과 현대 사회의 고민, 즉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같은 불안을 시에 도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다분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양태의 시라고 할 수 있다.

'고층 건물'이 '묘석'으로, '찬란한 야경'이 '잡초'로 직유되고, 사념(思念)은 아예 '병어리'가 되었다는 도회인의 정신적 위기를 반영한 시각적 표현과 '차단-한'이나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라는 촉각·시각의 공감각적 이미지,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위'에서의 '그림자'와 '어두위'로 상징되는 절망의 회화적 표현 등이 특징적 본보기가 되어 있다.

3. 3.외래어 표기중 맞는 것은?

- ① 데이타, 바베큐
- ② 에어컨, 글라스
- ③ 부페, 양콜
- ④ 심포지움, 비스켓
- ⑤ 레이저, 쇼맨쉽

- ④ 감자-무정-광장-학-봄봄
- ⑤ 무정-봄봄-감자-학-광장

[해설]

무정<1917년 매일신보> 감자<1925년, 조선문단>
 봄봄<1935년, 조광> 학<1953년, 산천지>
 광장<1960년, 새벽>

8. 8. 신파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② 1910년-1930년까지 대중적으로
- ③ 신파극의 본격적 출발은 임성주의 혁신단이다.
- ④ 토월회, 극예술협회는 신파극에 주력하였다.
- ⑤ 사랑, 애정

[해설] 신파극이란 1911년에 임성구(林聖九)가 혁신단이라는 극단을 창단하고, 1912년에 윤백남(尹白南)의 문수성(文秀星)이라는 극단을 만들면서 시작한 통속적 대중 연극을 말한다. 그 내용은 가정 내부의 갈등과 남녀 간의 애정 파탄 등을 감상적 수법으로 다룬 것이 대부분이어서, 연극적 가치는 미약했다. '신파(新派)'라는 말은 원래 일본에서 쓴 것으로서, 그들의 전통연극인 가부키를 '구파(舊派)'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초창기 근대극을 신파라 한 데서 온 말이다. 1910년대는 일본의 신파극이 예술성보다는 흥미성과 오락성으로 발전을 했으나, 1920년대에 신극이 등장하면서 중앙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여 1925년 이후는 프로레타리아 연극 중심으로....., 극예술협회는 20년, 토월회는 23년. 그리고 극예술연구회는 31년으로 서양의 근대극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 답은 ④.

9. 9. 다음 보기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철수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가 철수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가 사람을 치어 두 명을 죽게 했다. 고로 철수는 살인자이다."

- ① 의도확대의 오류 ② 논점일탈의 오류
- ③ 흑백논리의 오류 ④ 순환논증의 오류
- ⑤ 원칙혼동의 오류

[해설] 정답①의도하지 않은 바까지 너무 넓혀서 해석한 "의도확대의 오류".

10. 10. 다음 발음이 맞는 것은?

- ① 송별연-송:벼련
- ② 공권력-공궐력
- ③ 맑게-말:게
- ④ 밍지-밍찌
- ⑤

[해설]

- ① 송별연-송:벼련 = [송:벼련]이 맞구요. - <표준발음법의 29항(다만)>
- ② 공권력-공궐력 = [공궐력]이 맞구요. - <표준발음법의 20항(붙임)>
 비슷한말은 결단력 [결판력] 이 있습니다.
- ③ 맑게-말:게 = [말게]가 단음발음으로 해야 맞구요. - <표준발음법의 11항(다만)>
- ④ 밍지-밍찌 = [밍:찌]가 장음발음으로 해야 맞구요. - <표준발음법의 10항(다만)>

정답은 ①번.

11. 11. 다음 중 조선시대 가사가 아닌 것은?

- ① 송순-면앙정가 ② 안축-죽계별곡
- ③ 정철-관동별곡 ④ 백광홍-관서별곡
- ⑤ 김인겸-일동장유가

[해설] 답은 ②번으로 "안축의 죽계별곡"은 고려시대의 경기체가.

12. 12. ㄱ. 표준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되, ㄴ.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흘린다-흘리다
- ② ③ ④ ⑤

[해설] 문항이 정확히 복원되지 않아 해설 하기 어려움

13. 13.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가?

- ① 창조성 ② 진실성 ③ 평이성
- ④ 보편성 ⑤ 정확성

[해설] 글의 요건 중 진실성을 묻는 문항. 마음의 거울이란 글을 쓸 때 실제로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써야 글(언어)이 정성되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 답은 ②

14. 14. 다음 중 冀자를 옥편에서 찾을 때 부수는?

- ① 八 ② 北 ③ 異 ④ 共 ⑤ 匕

[해설] “바랄 기(冀)” 부수는 ①번의 팔(八) 字에 14획으로 총 16획 입니다.

15. 15. 다음 단락에 해당하는 소설의 제목은?

[해설]

광장(廣場)
- 최인훈¹⁾

길잡이

1960년 <새벽> 10월호에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쳐 장편으로 개작(改作)했기 때문에 판본(板本)에 따라 내용과 문체상의 차이가 많다.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데올로기적(的)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남과 북에 대한 객관적 반성이 나타나 있고 그 초월의 갈등과 상황의 비극성이 밀도 있게 표현되어 있다.

1) 최인훈(崔仁勳, 1936-)

소설가. 함북 회령생. 서울대 법대 중퇴.

1959년 [자유문학]에 단편 <그레이 구락부전말기(GREY俱樂部顛末記)>, <라울전(傳)>으로 추천받고, 1960년 <가면고(假面考)>로 각광받기 시작.

<경향>

현대인의 불안과 고뇌를 꿈, 일기, 독백, 회상 등의 다채로운 기법으로 표현.

<작품>

장편 <회색인>(1963.6-64.6), <광장>, 중편 <구운몽>, <열하일기>, <서유기(西遊記)>(1966), <총독(總督)의 소리>(연작 1967, 68),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연작, 1969-70), <웃음소리>로 동인문학상 수상(66),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등

핵심 정리

- ▶갈래 : 중(장)편 소설, 사회소설
- ▶배경 : 시간 - 8·15 해방에서 6·25 종전 사이
공간 - 남한과 북한
- ※ 현재의 공간적 배경 : 인도로 가는 타고르호(號) 선상(船上).
회상 속의 배경 : 6·25 당시의 남한과 북한.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성격 : 관념적, 철학적
- ▶문체 : 과거 회상의 독백체와 관념적 문체.
- ▶주제 : ①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이상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② 남북 분단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이상과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광장, 동굴, 밀실의 상징적 의미>

▶ 상징적 의미

- . 광장 : 사회 중심적인 세계. 개인적 존재 가치가 침해되기도 함
- . 동굴 : 자기 중심적인 세계. 타인의 간섭을 안 받는 개인적 세계

▶ ‘밀실’과 ‘광장’의 의미

‘밀실’이란 자신만의 내밀한 삶의 공간이며, ‘광장’이란 사회적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상호 관계와 작용 속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작품에서 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현실적인 이유를 광장을 찾아 월북하고 광장에서 절망을 한 후 은혜와의 밀실을 기도한다.

<‘광장’의 개작(改作) 내용>

중요 모 티 브	전집판(‘문학과 지성사’, 1989)	이전(以前) 판
갈 매 기	‘은혜’와 그녀의 딸의 표상	‘윤애’와 ‘은혜’의 표상
바 다	은혜의 ‘배(腹)’가 ‘바다’ 이미지로 그려지고, 이 명준은 그녀에게서 바다를 연상함.	은혜와 바다의 연관성이 두드러지지 않음.
죽 음	이명준은 은혜와 딸의 표상인 갈매기가 있는 바다로 투신함. 따라서 사랑의 선택으로 인식됨.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주요 원인

등장 인물

- ▶이명준 : 주인공. 철학도. 전쟁 포로. 남한과 북한을 오가면서 남한의 나태와 방종·북한의 부자연스러운 이념적 구속을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광장’을 찾아 중립국으로 가기로 하지만, 결국 삶의 참된 가치의 실현에 의문을 느끼고 배 위에서 바다로 투신 자살함.
- ▶이형도 : 명준의 부친. 월북한 혁명가. 이상적인 혁명가가 아닌 부정적 이미지를 보임. 남로

당원으로 월북하여 북한에서 고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명준에게 이상적 혁명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역시 회의의 대상이 됨.

- ▶윤애 : 명준의 남쪽 애인. 명준의 월북 후 명준의 친구 태식과 결혼하여 평범하게 사는 여인.
- ▶은혜 : 명준의 북쪽 애인. 발레리나. 북한군 간호 장교로 종군하다가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戰死). 명준의 삶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여인.
- ▶갈매기 : 중요한 소재. 배 위에서 은혜와 그의 딸로 상징됨. 명준 자살의 동기가 됨.

구 성

- ▶발단 :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고초를 겪다가 명준도 월북함.
- ▶전개 : 북쪽 사회의 부자유와 이념의 허상에 환멸을 느낌.
- ▶위기 : 인민군으로 종군하다가 포로가 됨.
- ▶절정 : 포로 석방 때 제3국을 선택함.
- ▶결말 : 타고르호(號)에서 바다로 투신함.

즐거리

주인공 이명준은 대학 철학과 학생으로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얹혀살고 있다. 그는 자기만의 밑실에 들어앉아 현실을 편협하게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살면서 대남 방송(對南放送)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빌미로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와 현재 어떤 연락이 있는가 조사를 당한다. 형사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그러나 이명준의 비판적 눈에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이 보일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진정한 삶의 광장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에서 이념의 무의미함을 다소나마 보상받지만, 그것은 개인적 삶의 한정된 행복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전쟁에 뛰어들다. 그렇지만 전쟁에서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포로가 된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그는 중립국을 택한다. 이제 그가 나설 광장은 남쪽과 북쪽 어느 곳에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商船) 타고르호(號)가 남지나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밤, 그는 바다에 투신 자살하고 만다.

1.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 배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삼천 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뻐뻐히 들어찬 동 지나(支那)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석방 포로 이명준(李明俊)은, 오른쪽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다리대를 타고 내려가, 배 뒷쪽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했으나바람에 이내 꺼지고 하여, (발단부)

2. 광장에서 졌을 때 사람은 동굴로 몰려 가는 것. 그러나 과연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사람은 한 번은 진다. 다만 얼마나 천하게 지느냐, 얼마나 가루하게 지느냐가 갈림길이다. 가루하게 져?아무튼 잘난 멧을 가진 사람들 뿔으로 그런 짜리도 썸에 넣는다 치더라도 누구든지는 것만은 떼어 놔다. 나는 영웅이 싫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좋다. 내 이름도 물리고 싶다. 수억 마리 사람 중의 이름없는 한 마리면 된다. 다만 나에게 한 뺨의 광장과 한 마리의 벼를 달라.

3.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 1,2,3 번호는 편자가 붙임>

이해와 감상 (1)

본격적으로 분단 문제에 접근한 대표적인 예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민족의 분단을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기로(岐路)에서 방황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북쪽의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폐쇄성과 집단 의식의 강제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남쪽의 사회적 불균형과 방만한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남과 북 어느 쪽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자살을 통해 이념 선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완강하게 고정되고 있는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또는 관념은 ‘밀실’과 ‘광장’이다. ‘밀실’이란 자신만의 내밀한 삶의 공간이며, ‘광장’이란 사회적 삶의 공간이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상호 관계와 작용 속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장’을 찾아 율복하고, 그 ‘광장’에서 절망을 한 후 은혜와의 ‘밀실’을 기도한다. 다시 전쟁이란 ‘광장’을 거쳐서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최후에 선택한 바다는 이념이 배제된 밀실이며, 사랑만이 참다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광장이다. 따라서, 이명준의 바다는 그만의 광장이요, 동시에 밀실인 것이다.

또 하나, 이 소설의 결미(結尾)는 ‘갈매기’와 ‘바다’의 서사시이다. 선상(船上)에서 맨처음 갈매기를 보는 순간, 그 새는 감시자의 눈길로 불안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매기는 이명준의 아픈 사랑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특히, 죽은 은혜와 그의 딸(낙동강 전투에서 은혜는 명준의 딸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징한다. 바다는 생명 본향(本鄉)이라는 원형적 심상과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탄생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 바다 위에 갈매기(‘사랑’의 징표)가 날고 있다는 것은 이 바다가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이명준만의 밀실이요 광장임을 다시 확인케 한다. 다만, 그것이 시민적 광장이 아니란 점에 이 소설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

16. 16. 다음중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아닌 것은?

- ① 고복격양(鼓腹擊壤) ② 강구연월(康衢煙月)
- ③ 함포고복(含哺鼓腹) ④ 비옥가봉(比屋可封)
- ⑤ 혼정신성(昏定晨省)

[해설] 정답은 ⑤

□고복격양(鼓腹擊壤) : ① 배를 두드리며 흙덩이를 친다. ② 태평세월
--- ㉠ <강구연월(康衢煙月)>

□함포고복(含哺鼓腹) : 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겁게 지냄. ②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함.

□비옥가봉(比屋可封): 중국 요순때 사람들이 모두 착하여서 표창할 만 하였다는 뜻

□혼정신성(昏定晨省) : ① 저녁에 부모님의 자리를 봐 드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밤새 문안을 여쭙. ② 조석으로 부모의 잠자리를 지성으로 돌보아 드림

17. 17. 다음중 여성의 고난을 그린 작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동명왕신화 ② 숙향전 ③ 화용도 ④ 바리데기 ⑤ 제석본풀이

[해설] 정답 ③번.

③번의 화용도는 일명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소설화한 부분이 화용도이고, 그것을 판소리타령으로 부르면 화용도 타령이 됩니다. 이는 적벽강에서 조조와 주유의 싸움이 있던 적벽대전 내용과 그 앞과 뒤로 벌어지는 이야기.

- ① **동명왕신화(東明王神話)**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물으니 그 여자는 말했다. “나는 하백의 딸로서 이름을 유화라고 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와서 노는데, 남자 하나가 오더니 자기는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밑 압록강 가의 집 속에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드디어 이 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금와는 이상하게 여겨 그녀를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으로 비쳐 왔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은 다시 쫓아와서 비쳤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닷 되 들이만 했다. 어머니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드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 ②...숙향이 다섯 살 되던 때에 오랑캐 병란(兵亂)을 일으켜 형주를 침노(불법으로 쳐들어감)하니 백성들이 피란할새 김생도 가족을 데리고 강릉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도적을 만나 행장 노복을 다 잃고 다만 부인과 함께 숙향을 업고 가다가 적이 점점 가까이 오는지라. 생이 느히 달아나지 못하고 부인더러 이르되...
- ④ 바리데기는 오귀대왕의 일곱째공주로 부모의 버림을 받았으나 온갖 시련 끝에 서천의 영약을 얻어 부친을 살리고 무속의 여신이 된다.
- ⑤ 제석본풀이라는 것도 위의 바리데기와 같은 유형의 敍事巫歌이다.

18. 18. 토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②③④⑤ 상대방을 설득하여 주장을 논파하고, 나의 주장에 동조하도록 한다.
[해설] 정답은 ⑤번.⑤번은 토론을 설명하고 있군요.

19. 19. 다음 글의 설명방법은?

유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유행은 둘째, 유행은 셋째,

- ① 분류② 분석③ 예시④ 유추⑤

[해설] 정답은 ①번으로 하되, 만약에 ⑤번에 "구분"이 있다면, ⑤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유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으므로 “유행”이라는 상의어를 그 종류(하의어)로 나눈다면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되는 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의 "분석"은 유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나 구성 요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20. 20. 문법에 맞는 것은?

- ① 싫증
② 갈께
③ 일찍이

[해설] ①번 "싫증"(달갑지 않게 여기는 마음으로)이 맞습니다.

- ②번의 갈께
③번 일찍이

<정답>

